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4. 8. / (총 8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이 선 영 문 달 해 임 예 슬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양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헌 박 나 연	전 화	044-202-3810 044-202-381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학원,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비자·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이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 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금)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토)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 2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방역 지침으로 △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하고,
-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3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상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병 유행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관을 거둬들인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악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을 운운하며 자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부처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은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많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집권 의료진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보호복 등 보호 용품이 부족하는 의료기관에 호소해 “살아두고 쓰라고 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 시그널 의미는 보호복이 없어 대수출 가운을 입고자 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순해상선 치료소를 하겠다고 코로너를 놓았다. 폐렴으로 숨진 1차 소년에게도 10일 19일 양생관을 입하 차례에 그 일 앞장 차는 음성) 나갔고 검사가 잘못됐다며 변형 질서 패배를 물었다가 철하한 인도 있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권을 깨려 들어서야 되겠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나사 달라고 읍소하다가 시장이 좋아지자 뒤로 단거리하여는 또 모습이 일진태라 비명질하는 등) 버림을 씌운 무능한 조선 관리를 연성개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딱딱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천·아산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달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업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발 자가격리’ 비상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표현하기도 힘들고 의외로도 지쳤다." 백련  
관 이사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막대한 나라 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라. 외국인도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들어온다고 하지는 말도 했다. 외교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충분히 알고 있는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  
의 현실이다."

[illegible]

한미 FTA에 대해서까지 일국제한 조치를  
하거요한이유다.

실용이 어떤데도 한국 정부만 일국제  
한 조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갈월열 차  
단' 요구가 빈번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한국자 2주간 입국여권과 결산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24.com

[illegible]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